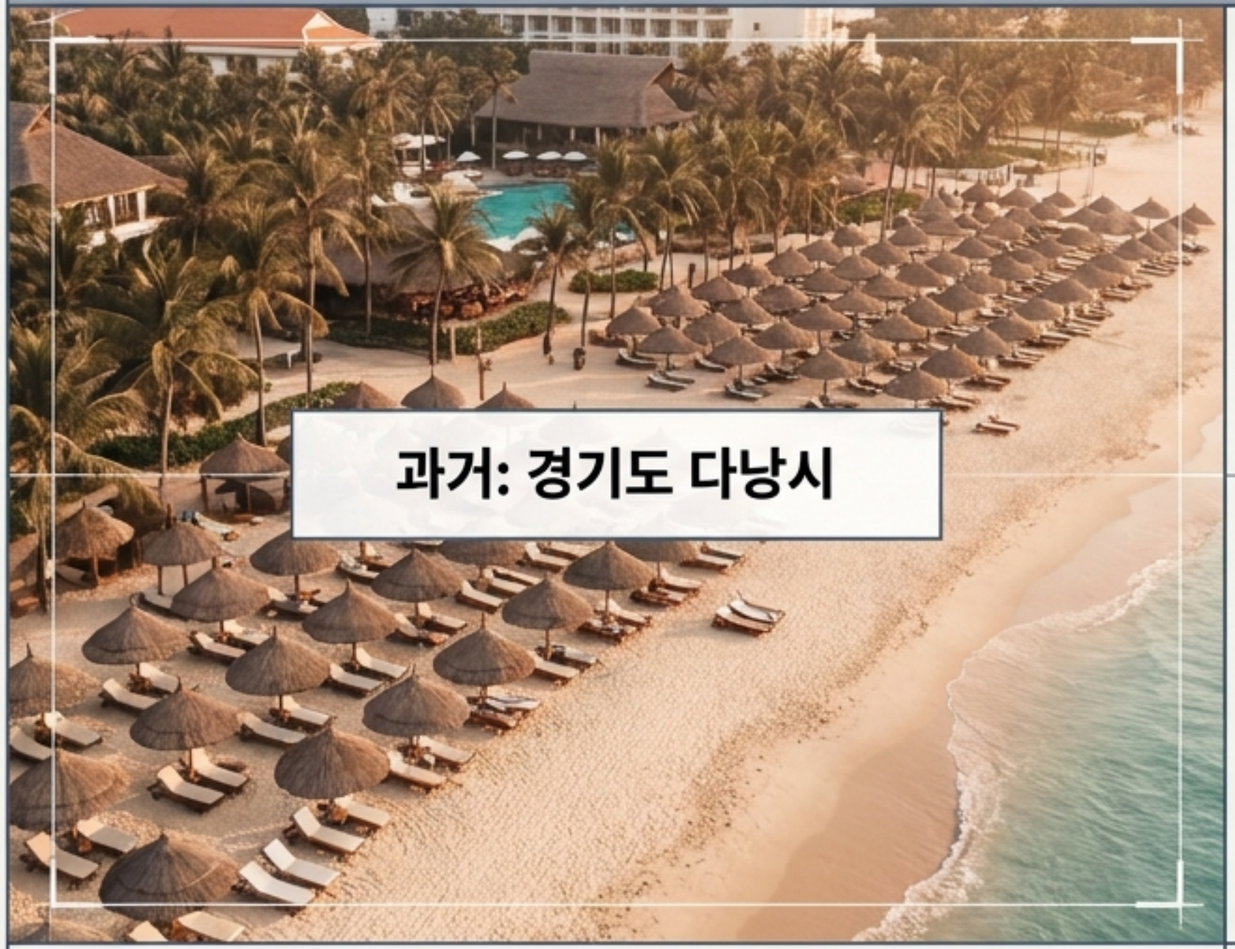
경기도 다낭시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다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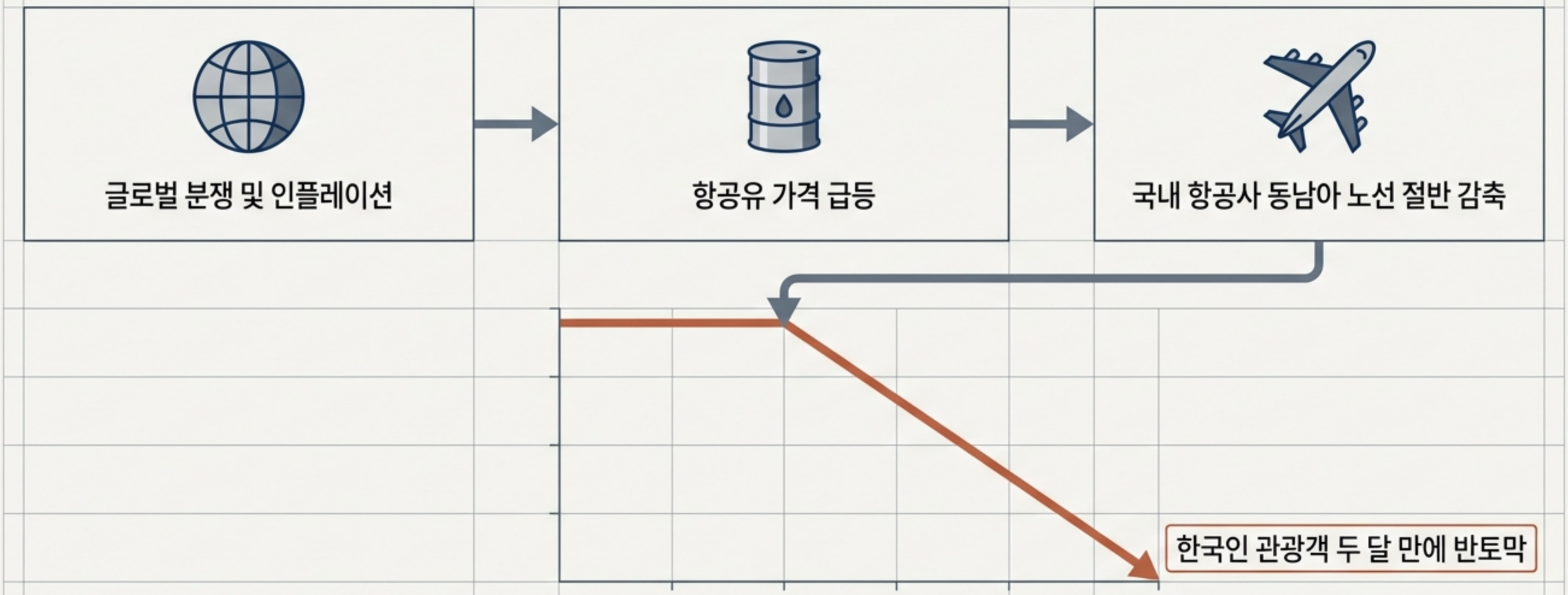
우리가 알던 저렴한 휴양지 이면에 숨겨진 '아시아 테크 메가시티'의 탄생





Gemini Notebook

'경기도 다낭'의 붕괴: 착시의 시작



다낭이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인 중심의 초저가 여행' 모델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Gemini Notebook

'한국인이 떠난 빈자리, 다국적 자본이 채우다



- 단일 국가(한국) 의존도 탈피
- 다국적 관광객 및 장기 체류자 유입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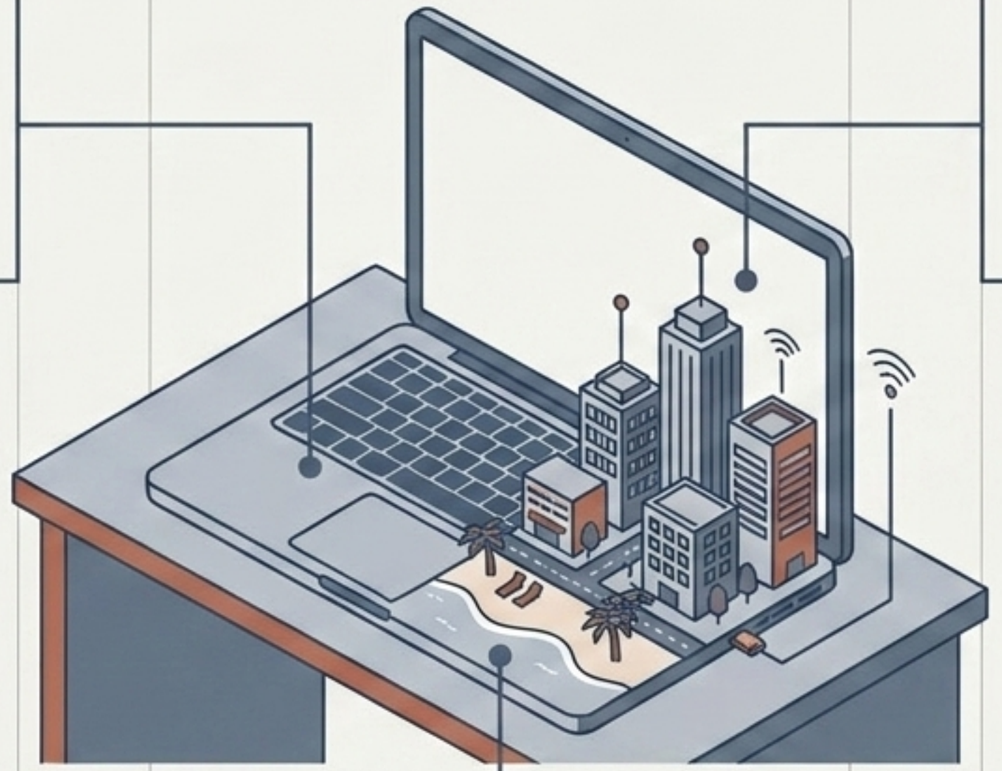
다낭이라는 관광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경기도 다낭시'의 시대만 끝났을 뿐입니다.

Gemini Notebook

'베트남의 마이애미: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

Top 8 City

세계 8대 디지털 노마드 시티 선정



Tech Festivals

매년 3월, 약 10일간 열리는 AI 및 온라인 비즈니스 글로벌 교류 축제

Work & Life Balance

일과 실거주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환경

Gemini Notebook

성장의 부작용: 프리미엄 수요와 현지 물가의 충돌

프리미엄 자본의 유입



-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고급화
- 프리미엄 주거비 급상승

현지 로컬 경제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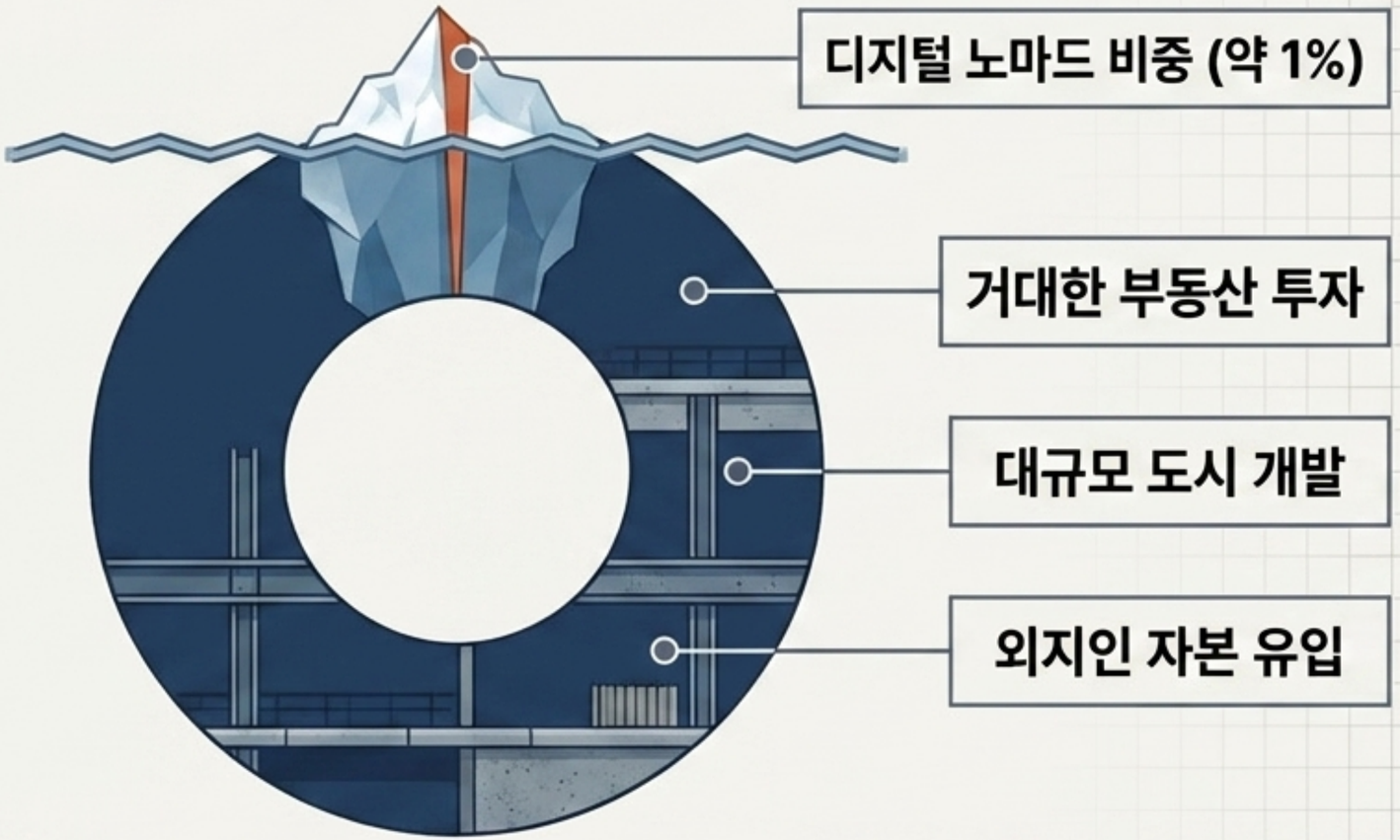


- 저렴한 로컬 식당 감소
- 원주민과 노동자의 주거 부담 가중

디지털 노마드 유입으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단기 체류자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Gemini Notebook

'1%의 착시':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노마드는 현상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다낭의 인플레이션은 이 도시가 단순한 관광지에서 '메가 테크 시티'로 재건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Gemini Notebook

다낭 2045 마스터플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45년 목표: 디지털 산업이 도시 경제의 50% 이상 차지



2030년 목표: IT 분야 종사자 수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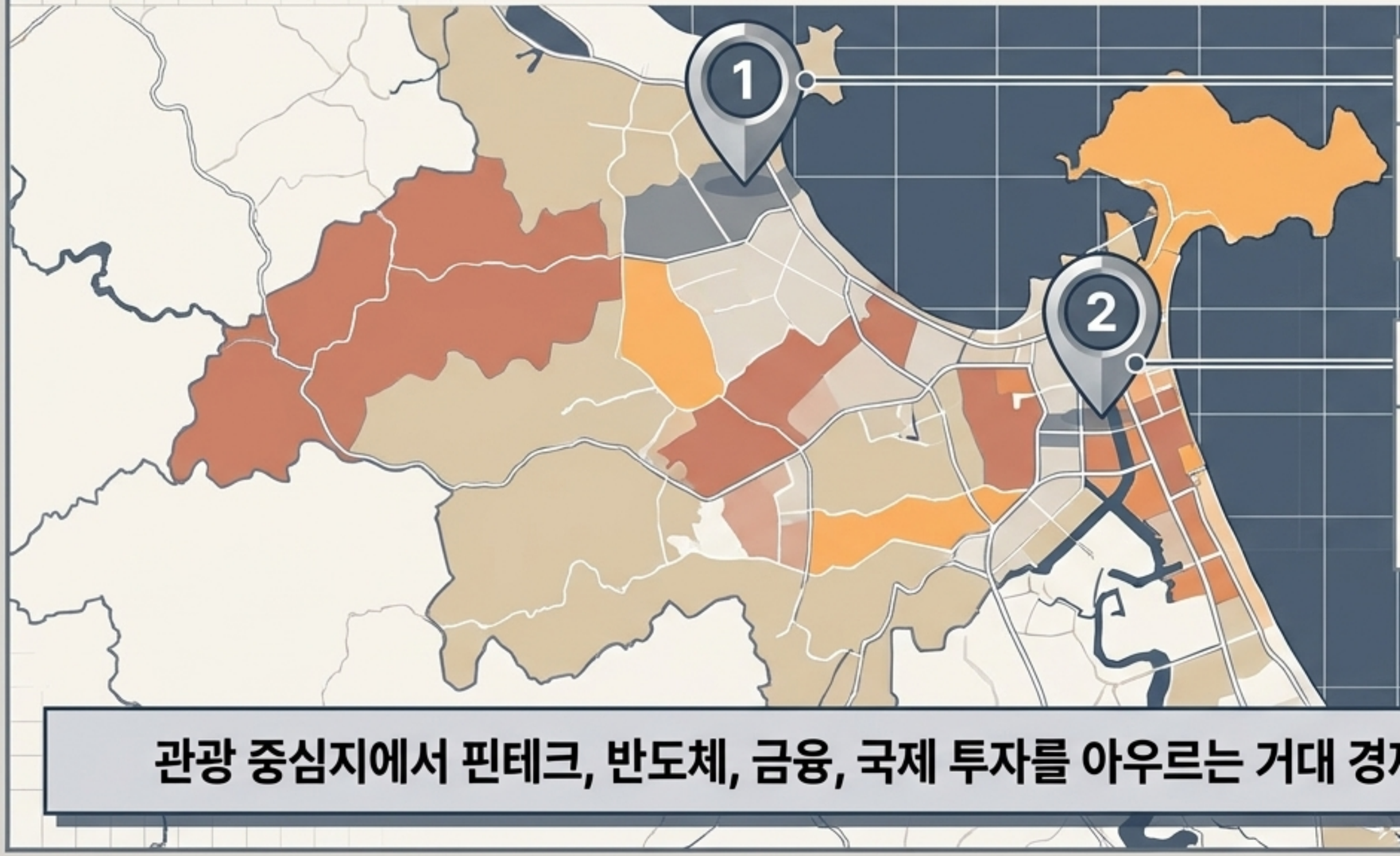


현재 디지털 산업 부문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중

이것은 허황된 계획이 아닙니다. 다낭은 이미 실질적인 두 자릿수 성장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Gemini Notebook

실리콘 비치(Silicon Beach)의 부상: 반도체와 자유무역지대



반도체 팹(Fab)

첨단 패키징 팹 착공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입주

자유무역지대(F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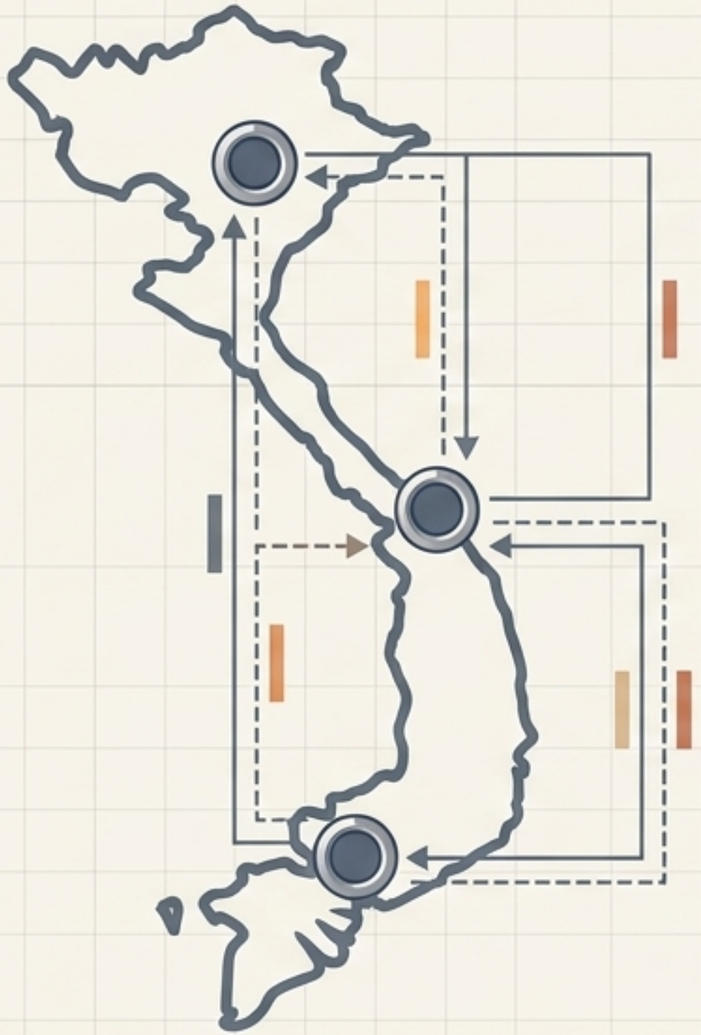
베트남 최초
자유무역지대 승인

법인세 감면 + 원스톱 투자 절차

관광 중심지에서 핀테크, 반도체, 금융, 국제 투자를 아우르는 거대 경제 특구로 진화 중입니다.

Gemini Notebook

베트남의 국가적 분업화:
다낭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다낭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역에서 진행 중인
'국가적 역할 분담'을 봐야 합니다.

각 도시는 철저히 기획된 거시 경제의
톱니바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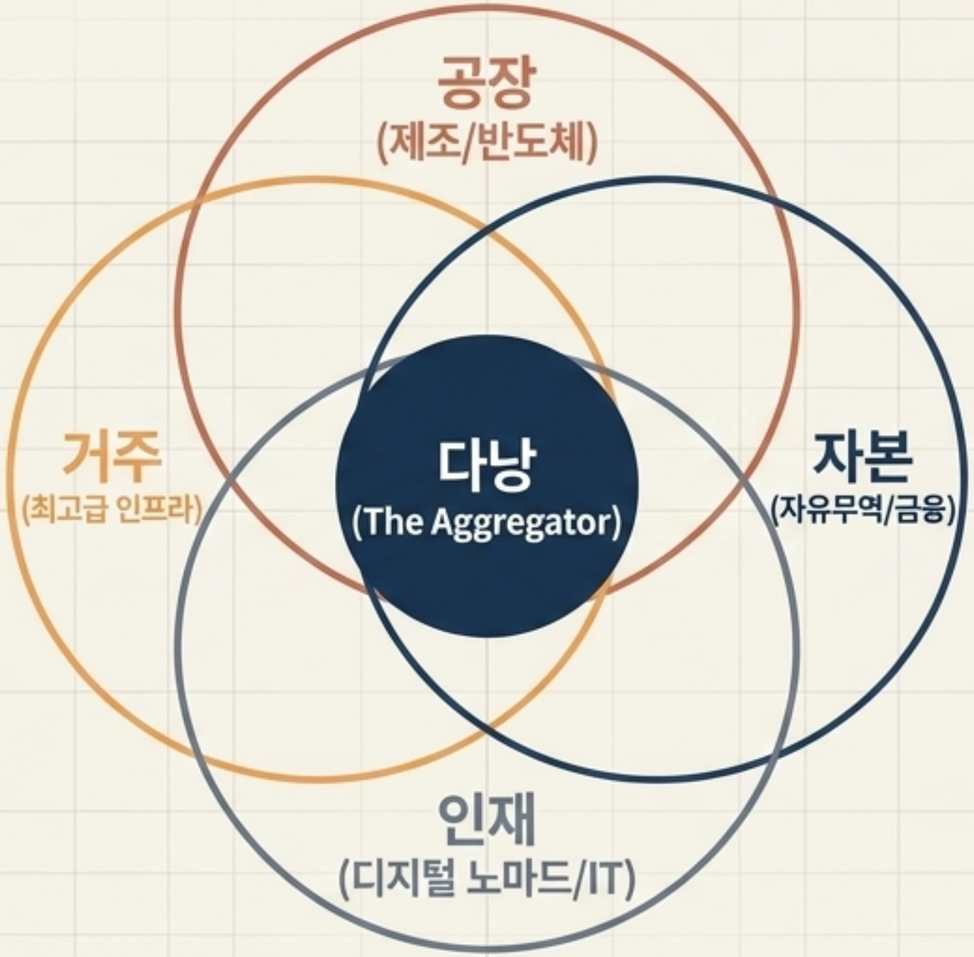
Gemini Notebook

4대 혁신 거점:
베트남의 테크/금융 마스터플랜

북부 박닌	북부 타이응우옌	남부 호치민	중부 꾸이년
전자/반도체 패키징	**대규모 제조 및 칩 테스트**	**글로벌 금융 자본**	**AI 및 IT 인재 양성**
• 앰코(Amkor) 16억 달러 투자 11년 조기 집행 • 전국 수출 1위 • 직할시 승격 예정	• 삼성 스마트폰 제조 허브 • 15억 달러 규모 반도체 테스트 공장 건설 중	•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오픈 • 나스닥/틱톡 참여 • 수십억 달러 투자 약속	• 대표 IT기업 AI 특화 교육 • 수천 명 규모 AI 센터 및 연구 단지

Gemini Notebook

다낭의 압도적 우위: ‘혁신의 집합체’



다낭의 진정한 힘은 앞서 언급된 모든 기능(공장, 자본, 인재 양성)과 ‘거주 환경’을 단일 도시 내에서 모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고 싶은’ 산업 생태계입니다.

Gemini Notebook

메가시티의 탄생:
베트남의 '두바이'를 향하여





2025년 이전: 아담한 관광 도시 다낭

2025년 이후: 꽝남성(Quang Nam)과 통폐합된 거대 행정구역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 체급 자체가 달라진 새로운 다낭은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메가-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Gemini Notebook

레저(Leisure) 인프라가 곧 강력한 '산업 경쟁력'



수십조 원 가치의
기존 휴양 인프라

+



자유무역지대 및
첨단 기술 투자

=



글로벌 최고급 인재를
영구적으로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자연과 휴양 인프라'입니다. 과거 '싸구려 관광지' 시절 구축된 막대한 인프라가 이제는 글로벌 IT 인재들을 붙잡는 최고의 무기로 전환되었습니다.

Gemini Notebook

패러다임 시프트:
과거의 다낭 vs 현재의 다낭

	과거 (Old)	현재 (New)
정체성	저렴한 동남아 휴양지	**글로벌 테크/노마드 메가시티**
경제 기반	관광 서비스업 절대 의존	**반도체, FTZ, 핀테크, 디지털 산업**
인구 통계	단기 체류 한국인 관광객	**다국적 자본가, IT 인재, 장기 체류자**
공간의 성격	소비를 위한 공간	**생산과 혁신, 거주를 위한 공간**

Gemini Notebook

보이지 않는 메가시티의 비상



우리가 알던 관광지 다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그 뒤편에서 전혀 다른 메가시티가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단기적인 관광 지표 너머, 거시적인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Gemini Notebook